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광양시,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무상 지원한다

오늘부터 27개소 1천 여 학생에 주 1~2회 제공

광양시는 12일부터 초등돌봄교실 27개소 1천여 명의 학생에게 제철과일로 만든 과일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수생산 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6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주 1~2회씩 제철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컵과일 형태로 제공한다.

또 과일간식의 재료가 되는 과일과채를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

관리(GAP) 인증을 받은 국산 제철과일만을 사용한다.

특히 시중 조각과일의 유통기한인 5일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처리(세척)부터 36시간 이내에 냉장 유통·소비를 원칙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가공하지 않은 과일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운영에 앞서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광양교육지원청을 통해 과일간식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을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중 공모를 통해 장성 삼계농협을 과일간식 공

급업체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8월 30일 학교 과일간식 지원근거를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이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육자 매실원에과장은 "어린이들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국산 과일의 소비 기반을 확충해 과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일반 초등학교까지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예비 귀농귀촌인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운영

보성다운 농촌문화체험으로 귀농귀촌인에 인기 만점



보성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9월 8일부터 2일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귀농귀촌 희망자 25명을 대상으로 보성군 일원에서 농촌문화체험 팸투어를 실시했다.

농촌문화체험 팸투어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보성군의 정주여건과 논거리, 먹을거리, 일할거리 등을 소개하고 보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업이다.

팸투어 1일차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설명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중

심으로 투어를 진행하였으며, 2일차에는 농장 체험으로 작물 재배 방법과 농장 경영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첫 날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신배 귀농인과의 간담회', '신배귀농인의 귀농 성공담과 귀농 주의사항' 등으로 귀농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혔다.

이어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암산 데크길 걷기', '전원 염색' 등

이 진행됐다. 5.7Km의 숲길을 완주하면서 참가자들은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맑고 고요한 시간을 보냈으며, 스카프에 쪽 염색을 해보며 새로운 경험을 맛보았다.

둘째 날에는 조성면에 있는 참다래 농장에 들려 참다래 재배방법, 친환경 재배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딸기 농장에서는 딸기 하우스 시설, 육묘, 병충해 방지, 스마트팜 등 다양하고 심도 깊은 각종 농업 정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투어는 현장에서 실제 귀농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신배 귀농인이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유능한 도시민의 인적자원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등 보성군의 귀농귀촌여건과 성공비결을 체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흥우드랜드 편백 소금찜질방 '인기'

장흥군 편백소금찜질방은 적외선과 전열열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휴양 시설로 소금찜질방, 소금해목방, 황토방, 소금단전호흡방, 편백 반식욕방 등 다양한 지류 시설을 갖췄다.

특히 편백효소흡입찜질은 편백나무의 톨펜에 썰겨, 미생물을 일정한 비율로 발효시켜 미생물의 대사작용에서 발생하는 순수 자연열(65°C~80°C)과 편백의 피톤치드 성분을 활용하는 이색적인 찜질 방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나 순수 자연열을 일으키는 데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다.

편백효소흡입찜질은 15~20분간의 체력으로 달리기 1시간의 운동량과 비슷한 효과를 내 신진대사 촉진 및 피부 미용, 성인병 예방, 체내 독소 배출 등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찜질 후에는 꿀반교정기, 자외선조사기, 체지방측정기 등의료체험기기를 활용한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광양시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연구과제 발표 3년 연속 '대상'

광양시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공간정보 분야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일부터 7일까지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열린 '2018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전남도 및 시군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분야 연구발표와 특강 등을 통해 도내 시·군간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를 1차 서면으로 평가한 후 우수 3개 시·군을 선정하고 행사 현장에서 발표대회를 진행했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광양시는 '도로시설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란 주제로 정보통신과 하재용 주무관이 발표했다.

시는 기존의 구축되어 있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신규, 변동 등 변경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DB화하고, 공무원과 시민에게 최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추석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순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일 북부시장에서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물을 국

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부인회 명예감사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며, 추석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

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749-867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 '모링가' 산업 활성화 박차



순천시는 '모링가 산업 활성화' 마련됐다.

와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전라남도 산림지원연구소와 상호 업무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링가에 대한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모링가 산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에는 '모링가 재배기술 및 명품 모링가 육성·보급 관련 연구' '순천시 대표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식재·가공·제품 개발' '모링가를 이용한 신제품 및 발효 제품 개발 등 기술개발 등 모링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남도 산림지원연구소는 순천시와의 업무협약과 함께 순천만포럼가람동조합과도 '모링가 재배 기술 및 제품 기술이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목사법항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